

출장제목	-2022년 해외 신흥교류 확대사업- 신흥교류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해외 출장			
여행목적	• 뉴질랜드 새만금 한글학당 운영 타당성 조사 및 도내 학교와 교류협력 방안 논의 • 재외 한국 교육원 및 공관 방문으로 양 지역 간 국제교류 네트워크 구축 • 뉴질랜드 현지 학생·교원·원주민 대상 한지공예 체험 프로그램 운영 • MOU 체결기관과 신규사업 및 협업 확대 방안 논의			
여행국	• 뉴질랜드 오클랜드시 일원			
여행기간	• 2022. 10. 24. ~ 10. 28.(3박 5일)			
보고서 작성자	• 국제진흥팀 이대한사원			
출장자	소 속	직 위	성 명	비 고
	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	센터장	이영호	
	경영기획팀	사원	오나현	
	국제진흥팀	사원	이대한	

붙임 출장 결과보고서

- 2022년 해외 신흥교류 확대사업 - 신흥교류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해외 출장 결과보고

I 개 요

- 출장기간 : 2022. 10. 24.(월) ~ 10. 28.(금) / 3박 5일
- 출 장 지 : 뉴질랜드 오클랜드시 일원
- 출 장 자 : 이영호 센터장, 국제진흥팀 이대한 사원, 경영기획팀 오나현 사원
- 출장목적
 - 뉴질랜드 새만금 한글학당 운영 타당성 조사 및 도내 학교와 교류협력 방안 논의
 - 재외 한국 교육원 및 공관 방문으로 양 지역 간 국제교류 네트워크 구축
 - 뉴질랜드 현지 학생·교원·원주민 대상 한지공예 체험 프로그램 운영
 - MOU 체결기관과 신규사업 및 협업 확대 방안 논의

II 주요 성과

- 뉴질랜드 새만금 한글학당 개소 타당성 조사와 현지 고등학교·대학교·원주민 대상 한지공예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전라북도 홍보 및 교류 네트워크 구축

III 세부내용

1. 한-뉴 문화원 관계자 면담 및 협업사항 논의

- 일시/장소 : '22. 10. 25.(화) 13:30~16:00 / 한-뉴 문화원(오클랜드)
- 참석자 : 한-뉴 문화원 이해원 원장, 김운대 공동원장, 이영호 센터장, 센터 이대한 사원, 센터 오나현 사원 등 5명
- 주요내용
 - (국제교류센터)
 - 센터와 한-뉴 문화원 간 MOU 체결('20.9.) 및 비대면 교류 이후 처음으로 양 기관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대면 행사에 감사함을 전달
 - 양 기관 협업사업을 논의하며 뉴질랜드에서 개최하는 랭귀지 워크에 한국어 행사 포함을 제언

- (한-뉴 문화원)

- 뉴질랜드는 다민족 국가로 176개 민족이 있으며, 각 언어별 랭귀지 워크를 만들어 현지 기관·단체가 참여하는 문화언어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나, 한국어 행사는 없는 상황임을 설명
- 뉴질랜드 현지에서 한국관련 행사를 운영할 때, 중국 전통의상을 한복으로 착각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, 한국문화와 전통을 제대로 알리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'코리안 랭귀지 워크' 행사 개최에 적극 공감



한-뉴 문화원 관계자 면담 및 협업사항 논의

2. 주 오클랜드 대한민국 분관 관계자 면담

- 일시/장소 : '22. 10. 25.(화) 16:30~19:00 / 주 오클랜드 대한민국 분관(오클랜드)
- 참석자 : 김인택 분관장, 임병록 문화 영사, 한-뉴 문화원 이해원 원장, 이영호 센터장, 센터 이대환 사원, 센터 오나현 사원 등 7명
- 주요내용
 - (국제교류센터)
 - 센터의 역할과 주요 사업을 소개, 뉴질랜드 새만금 한글학당 신규개소 계획 공유 및 다양한 분야 교류 추진 의사 전달
 - (오클랜드 대한민국 분관)
 - 현재 오클랜드의 여러 문화적 흐름과 분위기를 종합해 봤을 때 한국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이해도를 확인할 수 있음
 - 2023년 세계 한인의 날 행사에 국제교류센터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등 다양한 분야의 협업 가능성 검토



주 오클랜드 대한민국 분관 관계자 면담

3. Westlake Boys High School 관계자 면담 및 한지공예 체험 프로그램 운영

- 일시/장소 : '22. 10. 26.(수) 08:30~14:30 / Westlake Boys High School(3개 분반)
- 참석자 : Julia McGahan 국제팀장, 한-뉴 문화원 이해원 원장, 박금숙 (주)박금숙다종이인형연구소 대표, 이영호 센터장, 센터 이대환 사원, 센터 오나현 사원 등 9명 및 학교 재학생과 교원 약 80여명
- 주요내용
 - (국제교류센터)
 - 센터의 주요 기능 및 사업을 소개하고, 뉴질랜드 새만금 한글학당 운영 계획을 공유하였으며 전라북도 홍보자료를 배포
 - 전라북도 국제교류 시범학교로 지정된 4개 학교를 소개하며 도내 고등학교와 Westlake Boys High School 간 교류 협력방안 모색
 - (Westlake Boys High School 관계자 면담)
 - Westlake Boys High School은 매년 200여명의 외국인 학생이 입학하였지만 그중 대부분이 중국 학생이고 한국인 학생은 25명으로 축소된 상황
 - 코로나로 인해 국제교류 프로그램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, 이에 따라 단기·장기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실시하지 못하고 있음
 - 현재 강남외고, 대원국제중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교류 관계 유지 중
 - 학교는 국제교류 프로그램 제공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길 원하며 전라북도 내 고등학교와의 교류 의사 전달

- (Westlake Boys High School 교원 및 학생 대상 문화체험 프로그램)
 - 체험 프로그램 재료인 한지의 역사 및 우수성을 소개
 - 약 80여명의 Westlake Boys High School 재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(3개 분반) 닥종이 고무신 만들기 체험 실시
 - “한국 문화를 느낄 수 있는 한지 고무신 만들기 체험이 좋았고 재미있었다” 등 다수의 긍정적인 참가자 의견 확인



Westlake Boys High School 관계자 면담



Westlake Boys High School 한지공예 체험 프로그램 운영(3개 분반)

4. 마오리 원주민 대상 한지공예 체험 프로그램 운영

- 일시/장소 : '22. 10. 26.(수) 16:30~18:00 / Otara Recreation Centre - Seminar Room
- 참석자 : 박금숙 (주)박금숙닥종이인형연구소 대표, 한-뉴 문화원 이혜원 원장, 이영호 센터장, 센터 이대환 사원, 센터 오나현 사원 등 6명 및 마오리 원주민 등 20여명
- 변경내용 : Regency Tourism Group 관계자와 전라북도 홍보 및 관광객 유치방안 관련 논의 예정이었으나, Regency Tourism Group의 일정 변동으로, 마오리 원주민 대상 한지공예 체험 프로그램으로 대체 운영
- 주요내용
 - 닥종이 고무신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 운영
 - 체험 프로그램 재료인 한지의 역사 및 우수성을 소개
 - 마오리 원주민 20여명을 대상으로 닥종이 고무신만들기 체험 프로그램 운영



마오리 원주민 대상 한지공예 체험 프로그램 운영

5. Massey University 관계자 면담 및 한지공예 체험 프로그램 운영

- 일시/장소 : '22. 10. 27.(목) 08:30~14:00 / 메시대학교(Massey University) 오클랜드 캠퍼스
- 참석자 : Kerry Taylor 인문대학장, Djhoanna Lambert 국제관계매니저, Khiet Vo 국제팀장, 한-뉴 문화원 이혜원 원장, 이영호 센터장, 센터 이대환 사원, 센터 오나현 사원 등 9명 및 메시대학교 재학생 등 30여명

○ 주요내용

- (국제교류센터)

- 센터에서 운영 중인 새만금 한글학당 현황 및 절차 설명, 대학 측의 새만금 한글학당 운영 의지와 교육환경을 확인함
- 도내 대학과 Massey University(이하 메시대학교)의 교류(교환학생 등) 연결을 위해 도내 주요대학(전북대학교, 원광대학교, 한국농수산대학교)의 홍보물을 전달하였으며, 해당 대학의 해외교류 현황을 공유함

- (메시대학교 관계자 면담)

- 메시대학교는 1920년 농업대학으로 시작하여, 현재 뉴질랜드 대학 순위 4위(Center for world university rankings)에 랭크되어 있는 뉴질랜드 명문 대학으로 300개 이상의 해외 대학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음
- 메시대학교는 그간 한국소재 대학과 유학, 교환학생, 단기과정 등을 운영해 왔으나, 타 외국 대학과 비교 상대적으로 교류 활동이 적어 학위과정을 포함한 더 많은 한국 학생이 메시 대학교에서 수학하기를 희망

- (메시대학교 새만금한글학당 운영 타당성 검토)

- 타당성 조사 결과 메시대학교는 교원의 역량, 교육환경, 현지 한국문화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, 한글학당 운영 의지 등을 종합했을 때 한글학당을 운영하기에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나, 학당 운영에 필요한 내부 행정절차(해외송금, 학당장 지정, 운영요원 배치 등) 및 MOU 체결 등 세부적인 협의가 필요해 보이는 상황
- 더불어, 메시대학교는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을 제안하는 등 뉴질랜드 새만금 한글학당 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확인하였으며, 실무적인 절차가 정리된다면 한글학당 운영기관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

- (메시대학교 교원 및 학생 대상 문화체험 프로그램)

- 체험 프로그램 재료인 한지의 역사 및 우수성을 소개
- 메시대학교 International Recruitment Team과 재학생 등 약 30명을 대상으로 닥종이 고무신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 실시
- “한국 전통 신발을 아주 재미있게 만들었다.” “이젠 한국 음식을 맛 보고 싶다.” 등 다수의 긍정적인 참가자 의견 확인



Massey University 관계자 면담 및 새만금 한글학당 운영 타당성 조사



Massey University 한지공예 체험 프로그램 운영

6. 뉴질랜드 한국교육원 방문 및 관계자 면담

- 일시/장소 : '22. 10. 27.(목) 15:00~17:00 / 뉴질랜드 한국교육원(오클랜드)
- 참석자 : 뉴질랜드 한국교육원 박형식 원장, 한-뉴 문화원 이혜원 원장, 이영호 센터장, 센터 이대환 사원, 센터 오나현 사원 등 6명
- 주요내용
 - (국제교류센터)
 - 뉴질랜드 유학생 전라북도 유입방안 자문 및 GKS 장학생 관련 정보 파악
 - 센터의 역할 및 사업을 소개하고 뉴질랜드 새만금 한글학당 운영 계획 공유

- (뉴질랜드 한국교육원)

- 한국어 교육의 경우, 언어교육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문화를 알리고 상호이해를 위한 액티비티 중심의 과정을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제언하며 아래와 같은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자문
- 새만금 한글학당 수강생이 우리 교육부 EPIK(원어민영어보조교사) 프로그램에 지원하여 한국에 있는 학교에 원어민 강사로 취업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설
- 뉴질랜드 현지 한국기업들이 현지인 채용을 위한 한국어 교육 수요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며 뉴질랜드 한글학당을 통해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현지인력을 양성하고 우리 기업에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



뉴질랜드 한국교육원 방문 및 관계자 면담

IV 금후 계획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○ 뉴질랜드 새만금 한글학당 개소를 위한 협의 진행 | : 11~12월 |
| ○ 뉴질랜드 새만금 한글학당 개소 | : '23년 연초 |
| ○ 뉴질랜드 민간교류 지속 추진 | : '23년 연중 |